

“80년 5월 겪은 후 문학관·인생관 확 달라졌어요”

이승철 시인 광주전남문학사 100년 ‘광주의 문학정신과...’ 발간 지역문학 한국문학운동사 관점 조명... ‘광주젊은빛들’ 등 소개도

“이 책은 문학의 본질을 되찾아가는 여로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묻은 전라도와 나를 길러준 광주에서 생성된 문학을 꼭 한번은 정리하고 싶었어요. 광주전남의 진정한 문학정신은 무엇인지, 그 영혼과 모형을 찾고 싶었거든요.”

광주전남의 문학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의향으로 대변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정신에는 지역을 넘어 한국문학사와 상호 교섭되고 영향을 주고받는 자장이 있기 마련이다.

광주전남 근현대문학사를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책이 발간돼 지역 문학 출판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목표 출신 시인이자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승철 씨가 그 주인공. 이 시인이 최근 펴낸 ‘광주의 문학정신과 그 뿌리를 찾아서’ (문학들)는 192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년이라는 시대적 공간 속에서 살아오고 열매를 맺은 광주전남의 근현대문학의 실체를 조명한 다.

600여 페이지의 두툼한 책을 건네는 시인에게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을 마침내 해냈다’는 뿌듯함과 아쉬움이 묻어났다. 평소 행사나 술자리에서 보았던 유쾌하고 재기 넘치는 모습과는 달랐다. 그동안 방대한 분량의 자료 조사와 이를 구슬로 꿰기 위해 사투를 벌였을 저자의 사정이 읽혀졌다.

당초 이 책은 계간 ‘문학들’ (2013년 가을호-2014년 가을호)에 연재된 글이 모태가 됐다. 그는 “당시에는 잡지사 측의 기획의도와 지면 관계상 언급하지 못했지만 문인들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담아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문학들 송광룡 대표의 채근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웃었다.

“돌이켜 보면 스무 살 때부터 문학의 길에 들어섰으니 어언 사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푸르던 청춘의 그 시절 저는 아름다운 서정시를 쓰고 싶었죠. 그러나 1980년 5월을 통과하면서 문학관과 인생관은 180도 다르게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는 5월을 겪으면서 그때까지 견지했던 문학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된다. “문학은 이웃의 삶의 이야기이자 시대적 아픔을 짊어줘야 한다”고 믿었던 탓이다.

원래 그의 고향은 목포 산정동 바닷가 인근이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을 서울 봉천동에서 보내고 이후 부모님(부친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합평지국장)을 따라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러다 대학시절 광주 5월을 겪으면서 군사정권의 폭압을 겪게 된다.

그 이후 시인의 삶은 확실히 달라졌다.



그는 “지난 1982년 광주에서 ‘광주젊은빛들’을 결성해 시낭송운동과 벽시운동(벽에 시를 걸어 알림)을 전개했다”며 이후 “1984년부터 서울에서 ‘자유실천문인협회의’와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학작가회의’를 통해 활발한 문학운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후 문학운동을 병행하면서 84년부터는 출판계에 뛰어들었다. 출판운동은 다른 아닌 문학을 통한 민주화운동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서대문구지소 투옥이라는 역압으로 이어졌다. 문학을 매개로 한 민주화운동은 이후 인동, 황토출판사 대표를 역임하는 동안에도 여전한 삶의 모토였다.

김준태 시인은 그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김남주 시인이 책장암으로 숨겨 광주 망월동에 불히던 날 이 시인은 작가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 시인은 “김남주 선생님! 고향에 왔어요. 이제는 어서 일어나 마음껏 울고 그리고 마음껏 논밭과 밭길을 걸어보세

요”라고 울부짖더라는 거였다.

이번 책에서 ‘5월시’ 동인과 ‘광주젊은빛들’ 문학운동을 집중 조명한 것은 그때 문이다. 1981년 7월 광주에서 처음 출간된 ‘5월시’ 동인지 1집의 출간에 얽힌 비화와 동인 6인(박몽구, 나종영, 이영진, 박주관, 박재구, 김진경)의 등단과정, 2집부터 참여한 나해철, 윤재철, 최두석, 고광현, 강영철 동인의 이야기 등도 소개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국문학’ 차원으로 확장해 거시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는 점이다. “한 시대의 문학적 출현을 가능한 한 정치사회적 배경과 원인”을 추적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전남 근현대문학의 효시, 조운 시인이 동아일보에 발표한 최초의 시 ‘불살려주오’의 발표 시기(1921년 4월 5일)를 밝혀냈고 한국 최초 여류소설가 박화성의 등단 과정, 희곡작가 김우진과 소프라노 윤심덕의 현태에서의 동반자살 배경 등도 조망했다.

광주전남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던 다형 김형승 시인의 가계사와 동아일보 등단작인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 합시다’ 발표 지면과 그 발표 시기(1935년 3월 25일과 3월 27일)도 밝혀냈다.

“가급적 한국문학의 결정적 순간과 주목해야 할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비화와 에피소드 등을 많이 수록했습니다. 또한 지역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다수 문인들의 이야기도 육성으로 담아냈어요. 아무쪼록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광주문학의 새로운 일면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에 김완 시인

“공공성 회복·투명성 제고”

“다른 무엇보다 광주전남작가회의(작가회의) 내실을 다지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회원간 유대강화와 친목도모에도 관심을 기울여 작가회의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는 최근 광주 동구 민들레소극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완(사진) 시인을 신임 지회장으로 선임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현직 의사이기도 한 김 신임회장은 기존의 전업 작가 출신 회장들과는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지회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광주전남작가회의가 한국작가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면서도 “이제부터는 지역회원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부분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지역 작가회의 공공성 회복과 투명성 제고에 가장 큰 중



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월문학제, 섬진강여름청소년문학학교와 같은 행사는 기존대로 끌고 나가면서 한편으로 회원 개개인

의 내실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도 지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광주전남작가 지 ‘작가’ 발간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회원 명단 정비, 지회 차원의 공공재산 목록화 등 기초적인 일도 하나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출신의 김 회장은 2009년 ‘시와 시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그리운 풍경에는 원근법이 없다’, ‘너덜경 편지’를 펴냈다. 광주 보훈병원 심혈관센터장으로 재직했으며 광주전남작가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람이 전해준 소식 동심어린 눈으로 노래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정혜진 작가 동시집 ‘바람배달부’ 출간

“저녁 산책길에 아름다운 자연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다움을 나누는 이웃들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보물처럼 귀한 어린이들과 생활할 수 있어서 기운이 납니다. 발걸음과 손길로 이야기를 나눈 첫발 식구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1991년) 동화작가 정혜진 씨가 동시집 ‘바람배달부’ (도서출판 소아 주니어)를 펴냈다.

동시집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산, 들, 하늘, 바다, 그리고’, 2부 ‘구름 스위치’, 제3부 ‘그저 참’, 제4부 ‘생각 쓰레기’이다. 작가는 일상에서 선택한 소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간결하면서도 담담하게 펼쳐낸다.

각각의 동시에는 자신감과 새로움, 가치

관이 담겨 있어 어린이이뿐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도 무방하다.

“속달이요!/ 아빠에게만 전달할/ 아가 웃음씨앗 보내준 바람/ 퇴근길 서둘러/ 마음 바빠 집 향하도록/ 팔랑-팔랑-파알-랑~/ 나뭇잎 흔들어 주고 있다.”(‘바람 배달부’ 중에서)

표제시 ‘바람 배달부’는 바람이 전해준 소식을 동심어린 눈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바람이 퇴근길 아빠에게 전달한 ‘웃음씨앗’이라는 설정 자체가 흥미롭고 이채롭다.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생각의 깊이와 아울러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각각의 시를 형상화한 그림도 보는 맛을

더해준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 차은령 씨가 그림을 그렸다.

한편 고흥 출신 정 시인은 조선대학교 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아동문예’에 동시로도 등단했으며한국동시문학상, 한국불교아동문학상, 전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바람과 나무와 아이들’, ‘꽃목걸이’, ‘달콤 열매’ 등 14편의 동시집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 광주여성재단, 3월3일까지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이 ‘제2회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을 오는 3월3일까지 진행한다.

모집은 시각예술 전 분야의 프로젝트 기획 전시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와 기획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전시기획서는 재단 홈페이지(gjwf.or.kr)를 참고한 뒤 전자우편(jinsera@hanmail.net)으로 내면 된다. 합격자는 같은 달 11일 전문가 심사를 거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선정된 4개 팀(명)은 5월 중순부터 광주시 동구 호남동 재단건물 8층 여성전시관 ‘허스토리’에서 순차적으로 전시를 열게 된다. 또 300만~500만원의 전시 개최비와 홍보 책자 제작 비용(10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문의 062-670-053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다큐 ‘시인 할매’ 이종은 감독과 대화

15일 광주독립영화관

다큐멘터리 ‘시인 할매’ (사진)의 이종은 감독이 오는 15일 오후 7시 동구 서석동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관객과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다.

‘시인 할매’는 사계절 동안 곡성군 입면 서봉리 탑동마을 ‘시 쓰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그렸다. 평균 나이 84세인 김막동·김점순·박정례·안기임·윤금순·양양금·최영자 할매니 7명은 ‘길작은 도서관’ 김선자 관장의 도움으로 글을 깨치고 3년 전 ‘시집살이 시집살이’를 펴냈다.

KBS1 ‘다큐 공감’ 등 방송 다큐를 주로 연출해 온 이 감독은 지난 2016년 탑

동마을회관에서 숙식하며 할머니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영화는 지난해 열린 ‘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공개되며 주목을 받았고 지난 5일 전국 개봉했다.

독립영화관은 15일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에게 선착순으로 곡성 할머니들의 시 124편이 실린 ‘시집살이 시집살이’를 증정한다(관람료 6000원).

‘시인 할매’는 광주독립영화관 뿐만 아니라 곡성작은영화관, 롯데시네마 광주·최영자 할매니 7명은 ‘길작은 도서관’ 김선자 관장의 도움으로 글을 깨치고 3년 전 ‘시집살이 시집살이’를 펴냈다.

문의 062-222-18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작은만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부 062-220-0551

| | | | | | | | | | |
|--|--|--|--|---|---|--|--|---|---|
|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포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국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 써브웨이 광주충장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 조상양복점 서구 상무리로 6 김대중센터 마루역옆 50년 전통 결혼 예복 및 특수양복 맞춤 전문기능사 디자이너 기술로 몸에 맞게 맞춰드립니다. ☎062-374-7369, 010-7269-7369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 | | | |
|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 꼬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안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철 신용 분위 ☎010-9277-2011, 010-4624-8457 |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력)·양력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 교원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 루팡닭강정 북구 용동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
|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 | | | | |